

이라크, 유전개발 국제입찰 재개

1. 입찰 개요

□ 석유 산업 국유화 이후 약 40년 만에 국제입찰 실시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는 1972년 유전 국유화 방침에 따라 국제 석유자본을 추방한 바 있음.
- 이라크는 2년 내 일일 원유생산량을 400만 배럴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37년 만에 다국적 석유기업 및 외국 국영석유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전개발 사업권에 대한 국제입찰을 실시('09.6.30)

* 이라크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후세인 정권의 경제 제재, 이라크 전쟁 등으로 현재 약240만 배럴에 그치고 있음.

□ 이라크 최대 유전을 포함한 8개의 유전 및 가스전이 입찰 대상

- 금번 국제입찰은 유전 6개(Rumaila, Bai Hassan, Zubair, Maysan/Missan, Kirkuk, West Qurna-1, 최소매장량 38.45억 b/d)와 가스전 2개(Mansuriya Akkas, 최소매장량 7억ft³/d) 등 총 8개의 유·가스전을 대상으로 실시됨.

* 루마일라 유전은 이라크 최대유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Ghawar field 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유전임.

- 유전개발 사업권을 따낸 석유기업들은 20년의 계약기간 동안 최소 목표생산량을 초과해 원유를 생산할 경우, 이라크 정부로부터 배럴당 개발 이익금을 받게 됨.

2. 입찰 결과

□ BP(영국)와 CNPC(중국) 컨소시엄만이 유일하게 루마일라 유전 개발권을 획득

- 수많은 다국적 석유기업¹⁾들이 관심을 보여 기대를 모았던 이라크 유전개발권 국제입찰은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개발 수익 제시로 8개 입찰 대상 중 루마일라 유전 한 곳만이 낙찰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함.
- 루마일라 유전개발권을 획득한 BP·CNPC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개발이익금으로 초과생산 배럴당 3.99달러를 요구하였으나, 이후 이라크 정부당국이 제시한 2달러로 양보하면서 낙찰이 이루어졌음.²⁾

〈표〉 이라크 유전 및 가스전 개발권 국제 입찰 결과

단위: 배럴당 달러

유전 및 가스전명	입찰 참여 기업	컨소시엄 제시 조건*	정부 제시 조건*
Rumaila	BP·CNPC 컨소시엄 외 1개 기업	3.99	2
Mansuriya (gas)
Bai Hassan	ConocoPhillips	26.70	4
Zubair	Eni·Sinopec·Occidentel 컨소시엄 외 3개 기업	4.80	2
Maysan/Missan	CNPC·Sinochem 컨소시엄	21.40	2.30
Kirkuk	Shell·Sinopec·Turkish Petroleum Corp. 컨소시엄	7.89	2
Akkas (gas)	1개 기업	38	8.50
West Qurna-1	5개 기업	4	1.90

주: * 1일 목표 생산량 초과 생산량에 대한 개발 이익금
Akkas 가스전의 경우 석유 1배럴에 상당하는 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조건임.
자료: Global Insight

1) BP, Eni, Chevron, LUKoil, ExxonMobil, Petronas, Shell, Sinopec 등이 입찰 희망의사를 표명했으며, 희망 기업 명단에는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KOGAS)도 포함 되어 있었음.

2) 이는 현재 110만 b/d에서 250만 b/d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목표 아래 정해진 수치임.

□ 나머지 7개의 유전과 가스전은 조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찰을 포기

- 대부분의 경우 1개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최저 이익금 조건도 정부의 조건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West Qurna와 Zubair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 양상이 관찰 되었으나, 결국 조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찰을 포기함.
- Mansuriya 가스전은 입찰 참가 기업이 없었음.
- Bai Hassan 유전은 ConocoPhillips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이라크 정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함.
- Maysan/Missan 유전에 대한 입찰에 참여했던 CNPC·Sinochem 컨소시엄 역시 이라크 정부의 조건(counter bid)이 너무 낮은 것으로 판명되자 입찰을 포기함.
- Zubair 유전에 대해서는 4개의 기업이 경쟁하였지만 투자자를 찾는데 실패함. 현재 20만 b/d에서 112.5만 b/d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초과생산량에 대해 배럴당 4.80달러를 제시한 Eni·Sinopec·Occidental 컨소시엄의 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이었으나, 정부가 이의 1/2에도 못 미치는 2달러를 제시하여 결렬됨.
- Kirkuk 유전에는 Shell·Sinopec·Turky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였음.

3. 이라크 유전개발 투자리스크

가. 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 석유법을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간 비준권 다툼

- 새로운 석유법(national oil law)이 정당간 의견차³⁾로 인해 2년간 의회에 계류 중임에 따라 이라크의 석유산업은 아직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전에 만들어진 석유법(이하 구석유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석유 정책 및 계약의 비준권 주체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3) 쿠르드지역 자원에 대한 자율권을 주장하고 있는 쿠르드 당이 동 법안 통과에 대해 가장 완고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구석유법에 따르면 의회가 비준권을 보유하나, 이라크 정부는 동법이 전쟁 이후 도입된 헌법에 위배되며, 헌법에 의거할 경우 정부가 석유 정책 및 계약을 결정할 독자적 권한을 보유한다고 주장

□ 新석유법 도입시까지의 계약의 적법성 논쟁 지속될 가능성 상존

- 석유법을 둘러싼 계약의 적법성 문제, 즉 비준권을 둘러싼 정부와 의회와의 갈등과 관련된 정치적 위험은 새로운 석유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라크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나.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 정부와 자원민족주의 세력과의 갈등

- 자원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라크가 유전을 개발하고 생산량을 늘리는데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영석유산업 중심의 자력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이는 과거와 같이 국제석유기업들이 유전개발 이익을 독차지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됨.

4. 시사점 및 전망

가. 시사점

□ 석유산업 재건을 위한 국제입찰은 재개되었으나, 정치적·법적 문제로 인해 투자 유치에는 실패

- 이라크 내의 정치적·군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석유기업들이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이라크 정부가 초과 생산에 따른 개발 이익금을 무리하게 낮게 제시함으로써 이번 국제 입찰은 전반적으로 실패하였음.

- 이라크 정부는 동국의 방대한 석유매장량(1150억 배럴, 세계 3위)은 물론 잠재매장량도 엄청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한데다, 자원민족주의자들의 비판을 피하고자 엄격한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짐.
- 또 다른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라크의 법적·정치적·군사적 위험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이윤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법 문제 조속 해결과 국내 반대파와의 의견 조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전망

□ 석유부장관 Hussein al-Shahristani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듯

- Al-Shahristani는 쇠퇴한 석유산업에 대한 재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유전 개발권 입찰 문제에 집착하여 정작 유전 생산량 증대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이미 국내적으로 비난을 받아 왔음. 금번 국제입찰 실패로 그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 협상을 통한 추가 계약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입찰을 포기한 기업 중 최선의 조건을 제시한 기업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건차가 워낙 커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임.
- 또한, 양자간 추가 계약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인 바, 정부가 입찰과정을 공개적으로 방송함으로써 피하려했던 투명성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의 법적 정당성도 더욱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석유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

- 구석유법의 적용에서 오는 계약의 법적 모호성이 이번 입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석유법 통과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루말리아 유전 개발은 향후 他 기업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듯

-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반대하는 측인 의회 내의 석유가스 위원회의 의장인 Ali Hassan Balou는 루말리아전 계약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는 바, BP·CNPC 컨소시엄과의 계약은 향후 다른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전문연구원 고안나 (☎ 02-3779-5654)
E-mail : anna@koreaexim.go.kr